

새 대입 제도와 대학의 역할



유인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세 천년, 21세기는 단순한 연대기적인 세기의 전환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인류 사회의 관심이 산업 사회적 특징에서 지식 기반 사회적 특징으로의 전환, 지역 중심의 생활 공간에서 지식 정보 네트워크 중심의 가상 공간 개념으로 확대되는 등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가치관이나 지식관도 초근대 사회적 기준으로 전환될 것이며, 삶의 차원도 민족 국가를 단위로 한 사고와 행동의 구조에서 국경이 없는 개방된 세계적 표준과 경쟁의 삶을 사는 차원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물론 속도, 대화, 매체 등의 개념이 혁명적으로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교육 또한 기존의 교과목 위주의 단편적인 지식 암기 학습에 의한 규격화된 인력 양성으로서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체적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길러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과거 우리 나라 교육은 상급 학교의 입학 전형 제도에 의해 크게 왜곡 굴절되어 왔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중학교 입시가 과열되어 서울에서는 5대 공립 중학교를 폐교하기도 했었다. 지나친 고등학교 입시 경쟁은 과열 과외,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학교간 서열화,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특히 해방 이후 십여 차례의 변화를 겪어 온 우리 나라의 대학 입학 전형 제도는 오늘날에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서의 진학 위주 입시 교육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험 성적 중심의 전형 방식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21세기 미래 사회는 단순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스스로 지식을 습득, 관리,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화로운 인성을 지닌 건강하고 도덕적인 인제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보다 대학 입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진학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대입 경쟁으로 학교와 학원에서 무거운 학업 부담에 밤낮으로 시달려 왔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대입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까지 오해되어 성

“

앞으로 대학에서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해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 단위의 성격에 걸맞은 적격자를 선발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적 부진이나 학업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한 경우 좌절하여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현상까지도 있었다. 많은 학부모들도 고액 또는 과열 과외에 따른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겪어 왔다. 이와 같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미래의 다양화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부에서는 '학력보다는 능력이 위주로 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 권한을 존중하는 대입 제도의 개선'을 위해 수많은 연구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고심 끝에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학생의 기초 학력과 특기·소질·적성 등을 중요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나친 학력 경쟁을 지양하고 모든 대학은 건학 이념, 교육 목표 등 각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게 학생 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전형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새 대입 제도의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다시피 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최소 자격 기준으로만 사용하거나 입학 여부 결정에 영향력이 낮아지도록 한다. 5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총점을 폐지하여 석차화를 지양하며, 9등급으로 구분하여 활용하게 한다.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 생활을 종합 기록하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활용하게 한다.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학생의 특기, 각종 활동 기록을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 단위의 성격에 맞게 활용하도록 한다." 등이다.

이 때 모든 대학들은 각종 자격증, 경시 대회 수상 경력, 수학 계획서, 자기 소개서, 추천서, 취업 경력 등 학생의 소질과 특기가 반영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력 이외의 인성, 가치관, 사고력, 의사 표현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해 심층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새 대입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어 우리 학생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새 대입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바뀐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 전환과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한 '한 줄 세우기' 방식의 수치화 된 선발 기준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각자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하는 '여러 줄 세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입 제도에도 대비하고, 앞에서 말한 시대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 내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교육이 새로운 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수 년 전부터 '자율적·창의적·도덕적 인간'을 지향하는 인간상을 지표로 정하고 교육 개혁에 힘써 왔다.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평가 방법 개선, 소질·적성 계발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지식 정보화 능력

함양, 체계적인 진로 지도 등 교육 방법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장 체험 중심의 각종 수련 활동이 활성화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서울학생상'을 수여하기도 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노력과 정부의 새 대입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종래와 같은 손쉬운 성적 위주 선발 방법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 단위의 성격에 걸맞은 적격자를 선발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수능이나 내신 등 성적으로는 우리 나라 대학에 합격할 수 없는 학생들이 미국의 하버드나 MIT 등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단순한 지식의 암기 능력이나 성적의 총점보다는 대학에 진학하여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중요시해야만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느냐 보다는 어떤 학생을 선발하여 어떤 사람으로 잘 길러 낼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각 대학은 건학 이념이나 교육 목표, 그리고 당해 대학의 교육 여건 등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격자 선발에 초점을 맞추어 할 것이다. 학과 성적 우수자보다는 전공 계열이나 모집 단위의 성격에 적합한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국가의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야만 한다. 맹목적으로 명문대 진학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소질과 적성을 잘 파악하여 희망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과보호, 과기대, 과경쟁'은 우리 교육 현실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학력 위주 구조 개선에도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 교육의 총체적인 개혁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의 노력은 물론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과 합심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배경이나 연줄이 우선하는 사회, 정직과 최선보다는 대충과 요행이 만연한 사회, 창의성을 키우기보다는 집단주의로 억압하는 사회에서는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새싹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가 없다. 우리 청소년들이 양 날개로 훨훨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만 내일의 희망과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대학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교육 문제를 교육 본질에 바탕을 두고 슬기롭게 풀어 나갈 때,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소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다. 

유인종

중앙대 영문학과 및 동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Ph.D)하였다. 전주 신홍고 교사, 대전대 교수 및 교무처장, 고려대 사범대학 교수 및 사범대학장과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민선 초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장 등을 거쳐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 교육의 개혁 동향』, 『한국 교육의 전통과 개혁』 등이 있다.